

[목포권]

목포항 수질오염 심각

정화되지 않은 영산강 물 유입…하당 앞바다 3급수 전락

하수처리장 용량 적어 오·폐수도 그대로 유입

목포항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갈수록 증가하는 등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방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해양환경조사 자료에 따르면 목포 여객터미널항내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004년 1.48PPM, 2006년 2.60PPM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당 평화광장부근은 2004년 2.29PPM, 2005년 2.64PPM, 2006년 3.02PPM으로 3급수로 전락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영산강과 금강, 낙동강의 수

질을 측정한 결과 영산강의 평균 타도(濁度)는 43.68NTU(빛이 산란하는 현상을 이용해 측정한 타도의 단위)로 낙동강 10.036, 금강 9.090 NTU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목포항의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축산, 농경, 생활하수 등 각종 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 채 영산강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목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이 적어 폭우시 오·폐수가 바다로 흘러든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및 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도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권권석 과장은 “영산강유의 주민과 항만 이용자들은 물론, 목포 해수청과 전남도, 목포시, 기타 관련 지자체에서 영산강 오염원을 차단해 목포항 수질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BTL(민자유치방식) 사업으로 우천시에도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착수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봄 맞은 목포항 출어준비 한창

목포시 동명동 선창 일대에서 어민들이 출어준비를 위해 분주한 손길을 늘리고 있다. 흑산도 등 전남 서해안 해역은 조기잡이가 끝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병어와 아귀, 꽃게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건강·등산의 섬, 진도로 오세요

내달 14일 접도서 전국 웨빙등산대회

진도군 의신면에서 ‘제 1회 전국 웨빙등산대회’가 다음 달 14일 개최된다.

이번 등산대회는 ‘건강의 섬, 등산의 섬 진도로 오세요’라는 주제로 올참한 상록 활엽수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의신면 접도에서 열린다.

접이지만 육지와 연결된 접도는 주변에 높은 산은 없으나 기암 절경과 상록 활엽수림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사방에서 다도해의 비경과 일출, 일몰을 감상 할 수 있어 등산의 명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도군 행정지원과(061-540-3462)나 접도 웹정보화마을(061-544-5006)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등산로에는 동백꽃과 진

달래꽃 등이 만개해 장관을 연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산 코스는 3km(1시간)와 11km(4시간 30분) 등 4개 코스가 있다.

등산대회 부대행사로 석화전, 간재미회 무침 등을 판매하는 향토식당과 김·멸치·미역·다시마 등 진도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판매하는 향토특산품 매장이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도군 행정지원과(061-540-3462)나 접도 웹정보화마을(061-544-5006)로 접수하면 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신안 우이도 모래언덕 천연기념물 지정 보류

주민들 “재산권 침해” 반대

동양 최대 섬 지역 모래언덕으로 알려진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모래언덕의 천연기념물 지정이 보류됐다.

도초면 우이도리 1구 주민들의 요청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문화재 청은 최근 “인근 성촌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모래언덕이 동양 최대 규모인 높이 70m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정 반대 주민들은 “섬 전체가 이미 국립공원 지역이고 특히 사구는 보존의 최고 등급인 ‘자연보존지구’로 지정돼 모든 행위가 금지돼 있다.”

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 행사가 더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높이 70m, 너비 50m, 경사 70~80도로 웅장한 이 사구는 모래가 유실되는 등 상당 부분 훼손돼 대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립공원 나도 해상 서부사무소에 의해 출입이 2010년까지 통제되고 있으며 무단 출입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목포 해안 우리가 치운다

해군 609전대 월 1회 쓰레기 수거 운동

해군 6전단 609전대가 깨끗한 해안 가꾸기에 앞장 서고 있다.

지난해 말 목포로 기지를 이전한 609전대원들은 조류에 휩쓸려온 업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목포비행장 인근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지난 1월부터 ‘월 1회 해안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

609전대 장병들은 지난 1월부터 지난 16일까지 1km에 달하는 해안을 둘며 400여 자루 분량(5t 트럭 2대 분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609 전대장 박영국 대령은 “전 장병이 하나 된 마음으로 해안 가꾸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해군이 국토방위 뿐만 아니라 환경지킴이 역할에도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lsh@

신안 지도읍에 ‘안산공원’ 조성

2억7천만원 들여 산책로·지압보도 등 설치

신안군이 섬 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지도읍에 ‘안산 공원’을 조성한다.

신안군은 총 사업비 2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가시나무와 후박나무 등 각종 관목류를 심어 산책로를 개설한다. 또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원내에 지압보도 및 아와헬스 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도읍 발전에 공을 세운 선인들의 각종 공적비를 ‘안산 공원’ 내에 이설해 지역민의 자금심과 예방심을 높이고 지역 명소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로 제 공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읍~점암 구간 6.3km 국도변에 사계절 꽃을 감상할 수 있는 난대

상록활엽수 위주의 가로수 6종 7천 800여주를 오는 4월초까지 심기로 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군 폐농기계 수거

신안군이 방치돼 있는 폐농기계 수거에 나선다.

신안군은 각 읍·면 마을단위 공동 수집장을 선정해 수거된 물량이 2.5t 미만일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 2.5t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키로 했다. 군은 연말에 실적을 짐계해 우수마을 및 각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도읍 발전에 공을 세운 선인들의 각종 공적비를 ‘안산 공원’ 내에 이설해 지역민의 자금심과 예방심을 높이고 지역 명소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일반 850원→1천원

학생 650원→700원

목포 시내버스요금 인상

목포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4월 1일부터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일반은 850원에서 1천원, 중·고생은 650원에서 700원, 초등생은 400원에서 450원, 좌석버스 요금은 1천300원에서 1천450원으로 각각 오르며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 5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목포시는 친절·안전 운행 교육과 교통카드 보증 소 확대 등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해역방어사령부 5개부대-5개 마을 자매결연

농산물 구매 등 교류활동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가 지난 21일 농협 회의실에서 목포해역방어사령부 5개부대와 관내 5개 마을간 자매결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농협과 해군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1부대·1촌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으로 목포해방사와 자매 마을은 농번기 일손돕기를 비롯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마을축제 참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환 등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이영배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

지부장은 “교류활동 전개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 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기강 확립·치안 협약 해결

목포경찰서 긴급대책회의

목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대회의실에서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포함, 23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근무기강 확립 등 치안협약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인균 서장은 “국민들이 불

안감으로부터 속히 해소 될 수 있도록 유치원, 통학로, 놀이터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내부의 자체하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민생업무와 사회안정에 매진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lsh@

제주도 현지여행사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현지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중간마진을 들려 드립니다

◆ 제주도 제주시 연동 1372 신성빌딩 1층

◆ 등록번호 616-81-11280

주소창에서 제주무궁화관광 을 점보세요!

또아아~ 목구조, 누동(고등)출발

제주도 여행 2박 3일 78,000원

가족끼리, 친목, 계모임... 모두들 환영합니다. 1일 한라산등반+1일관광도 가능합니다. (₩88,000원)

본래에 슬원, 일출랜드, 승마체험 등 다양한 체험관광을 애보세요~

목포 출발 “목카투어” 78,000원

*일정~ 1일째: 목포국제여객터미널 (09시 30분 또는 15시출발-한일박)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호텔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7:30)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

*출발일: 매일출발(단, 토요일은 제외)

*포함내용: 항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중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1박2일 크루즈투어] 68,000원

(한라산등반 또는 1일 제주관광)

오픈기념! 해저탐험 잠수함관광을 원하시는 49,500~30,000원

(단, 미리 사전예약에 한합니다. 당일 예약시 정상요금 적용)

교통(누동)출발 78,000원

*일정~ 1일째: 누동 남해고속터미널(10시) 출발 -호텔박

2일째: 제주관광 또는 한라산 등반 -호텔박

3일째: 제주관광-제주항(18:00)출발

(단, 일요일은 16:30출발)

-금요일은 14:20~14:40(제주항)

*포함내용: 항복선박, 숙박2박, 조식2회, 석식2회, 차량료, 입장료, 주차료

[3박4일 크루즈투어] 108,000원

(한라산등반+2일 제주관광)